

제8회 교정교화세미나서 심영희 교수 발표

여성의 경제참여가 늘어나면서 여성범죄율도 높아졌다고 생각하기가 쉽다. 그러나 최근 제8회교정교화세미나에서 〈여성범죄와 여성범죄자의 특징〉에 대한 발표한 심영희 교수(한양대)는 여성범죄율의 변화는 경제활동의 참여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5년 36.5%에서 80년 41.6%, 90년 47.0%로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동안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76.6%에서 73.9%로 줄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남성의 범죄는 4.5배 늘어난 데 비해 여성범죄는 2.2배밖에 늘지 않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과 범죄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가족 대상, 또는
‘가족을 위해서’ 범죄 저질러

여성 범죄의 범위는 가족이나 친·인척에 한정된다. 여성범죄는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피해대상으로 삼기도 하고 그들을 위해 다른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여성범죄 다발층은 30~40대 기혼여성으로 교육정도는 고졸, 국졸, 중졸의 순이고 생활정도는 하가 80.8%로 압도적으로 많다. 남성범죄가 20대 미혼자에게서 많은 것과 대조를 보인다.

그리고 폭력,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여성들은 가족, 가정 문제의 피해자인 경우가 많다. 미국교정학회가 감옥에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조사에 의하면 조사대상 여성의 반 이상이 신체적 학대의 피해자였고 36%가 성적학대를 받은 사람이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년원에 수용되어 있는 비행소녀의 경우 부모사이가 나쁠 때 이에 대한 반발로 비행에 빠져드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통계에 의하면 여성 범죄의 대상은 ‘동네 안면이 있는 사람’이 가장 많았으며(22.7%), ‘전혀 모르는 사람’(18.5%), ‘남편’(15.9%), ‘친구·선후배’와 ‘애인’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살인의 경우에는 그 피해자가 남편인 경우가 34.4%로 가장 많고 동네사람이나 안면이 있는 사람, 자식, 애인 순이어서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53%에 이른다. 반면 남성의 경우 ‘전혀모르는 사람’에 대한 범행비율이 57.3%로 가장 많고 안면이 있는 사람, 친구 순으로 가족에 대한 범죄가 여성에 비해 훨씬 적다.

가족 때문에 일어나는 범죄 못지 않게 가족을 위해 감행되는 범죄도 여성범죄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의하면 90년 현재 우리나라 여성범죄자수는 총 14만9백27명(남성 1백3십만9천5백97명)이다. 이를 범죄유형별로 분리해 보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2만4천63명), 사기(1만3천1백61명), 간통(6천3백78명) 순이며 여성비가 많은 범죄는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과 간통이고 도박과 상해, 사기 등의 범죄가 15~20%의 비슷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시대별로 살펴보면 65년 이후 90년까지 재산범죄가 매년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절도는 매해 줄어들고 있는 반면 사기, 배임 등은 늘고 있다.

심 교수는 “여성은 사회경제적 활동에 제약이 많고 여성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가정이므로 범죄를 하게 되는 계기와 동기도 가정과 관계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최근 공직자들의 비리와 부정에 대한 사정 결과 밝혀진 비리의 책임이 여성들에게 떠맡겨지고 또 여성이 기꺼이 비난과 책임을 떠맡으려고 하는 경우를 예로 들었다.

생리·임신·갱년기에도 영향

한편 주성원(고등검찰관)씨는 〈여성범죄의 경향과 특성에 관한 분석〉이라는 논문을 통해 생리, 임신, 갱년기 등도 범죄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다.

주성원 씨는 여성들은 월경기에 불쾌감을 느끼고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의 여성들이 심리적으로 동요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월경기의 여성들은 공통적으로 비정상적인 신경질, 불안감 등을 느끼게 되며 그 결과 남편이나 자녀를 비롯한 가족들에게 평소처럼 자상하고 세심한 태도를 유지 할 수

없게 되면서 감정의 폭발, 타인을 중상하는 언동, 평안의 침해, 권위에 대한 반항, 육체적 고통을 잊기 위한 알콜 과다복용 등의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이고 확실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월경으로 인한 심리적인 불안이 반드시 범죄와 관련된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일본에서 여성살인범의 39.4%, 방화범의 36.1%가 월경직전부터 월경이 끝날 때까지의 기간 중에 범행을 했다는 결과가 나온 적이 있다.

임신으로 인한 여성의 심리상태의 변화도 여성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특별한 이유가 없는 기분의 변화, 평소의 식성과 무관한 식사에 대한 욕구로 대표되는 비정상적인 갈망과 의식의 일시적 상실 등이 임신 중인 여성이 경험하는 심리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이유 없이 변하는 기분, 자제력의 상실 등의 심리가 범죄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부분 역시 아직은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가설에 불과하다.

그밖에 갱년기의 심각한 심리적동요가 이 시기 여성들의 범죄를 촉진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시 되고 있다.